

• 시론 •

창조를 숭상하는 벤처문화

조용호/아주대 교수

벤처기업이 생활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벤처기업이 밀집된 곳에는 패기발랄하고 신선한 생활양식이 자리잡게 되면서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존의 직장문화와는 사뭇 다른 특유의 ‘벤처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벤처현상은 하나의 경제적 실험을 뛰어넘어 문화적 실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벤처문화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유로움일까. 아니면 젊음인가. 벤처기업으로서 특유의 문화를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문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벤처기업의 문화에 대한 정형화된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문화 모형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들, 일본과 유럽의 기술집약적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형상은 비슷하다. 고객과 밀착된 행동양식이 있으며, 스피드와 창조를 숭상하

고, 팀워크와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명확한 비전과 명료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근무시간은 짧고 일과 후나 주말을 즐기지만,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 등은 밤과 낮이 따로 없다. 일이 끝나면 쉬는 것이고, 프로젝트가 완결되어야 여행을 떠난다.

벤처인들은 형식과 조직의 구속을 기피하려는 개인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팀워크의 명수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누구하고도 협력한다.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셈이다.

창조를 강조하고 무질서를 허용한다고 해서 벤처기업의 구성원들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고유한 비전이 있고 ‘이것만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이 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다양성 속에서 구심점을 갖추는 것이다.

요컨대, 고객밀착, 스피드와 창의, 팀워크와 네트워킹 그리고 비전과 가치관은 디지털시대에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쌓아가야 할 벤처문화다.

출처 : 월간 <인사관리>

• 주요뉴스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발표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벤처투자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벤처캐피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근본원인은 벤처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조성 없이 투자확대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재원의 유입 및 회수방안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벤처투자의 선순환구조 정착 및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펀드중심의 벤처캐피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으로써 벤처투자 산업의 자생력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 Secondary Market 조성 확대 ▲ 정부 출자방식의 합리성 제고 ▲ 벤처캐피탈 조직형태 개선 ▲ 시장의 신뢰회복 및 벤처투자 인프라 강화 등이다.

IT전문펀드 9개 조성

정보기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총1375억원 규모의 IT전문펀드 9개가 조성된다.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는 최근 IT전문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250억원 규모의 대형펀드 2개, 125억원 규모의 소형펀드 7개 등 총1375억원 규모의 9개 펀드를 조성해 IT기업 및 IT화 중소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9개 펀드를 모두 IT 중소기업에 100% 투자하는 전문 IT펀드로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총투자재원의 40%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들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작업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부부처의 벤처투자재원이 크게 줄어들어 내년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민간 벤처투자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내년도 투자재원 확보차원에서 많은 벤처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 선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